

송어

송어(학명: *Oncorhynchus masou*)는 바다로 나가기 전에 일생의 절반을 민물고기로 강에서 보냅니다. 그리고 바다에서 2~3 년 살다가 산란을 위해 태어난 강으로 돌아옵니다. 일본어로 송어를 사쿠라마스라고 부르는 이유 중 하나는 성숙하면 벚꽃(일본어로 사쿠라) 색을 띠기 때문입니다. 그렇게 불리는 또 하나의 이유는 보통 송어가 벚꽃의 개화 시기인 봄에 잡히기 때문입니다. 송어는 봄이 되면 태어난 강의 산란장으로 돌아옵니다. 송어의 분포 범위는 매우 한정적이며, 성숙한 후에는 북일본 연안부에서 머뭅니다.